

에코디젤, 브라질 바이오디젤 리드

4개 공장 총 생산능력 4억리터 달해 ... 2007년 8개에 8억리터로 확대

브라질이 에탄올(Ethanol)과 함께 바이오디젤을 유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생산기업 Ecodiesel이 주목받고 있다.

Ecodiesel은 5월18일 브라질 중부 토칸틴스의 포르토 나시오날 지역에서 4번째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 확대에 들어갔다.

신규공장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1억2000만리터로 기존 3개 공장을 포함하면 총 생산능력이 4억리터에 달한다.

여기에 2007년 4개 공장을 추가 건설하면 총 생산능력이 8억리터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6년 생산량 2억8200만리터의 2.5배를 넘는 수준이다.

Ecodiesel은 내수시장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007년 5000만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유럽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2008년부터 기존 디젤연료에 바이오디젤을 2%씩 의무적으로 혼합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바이오디젤의 내수 소비량이 8억4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odiesel은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젤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바이오디젤 원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콩의 비중을 2010년까지 20% 안팎으로 낮추는 대신 해바라기를 18%에서 45%, 피마자를 12%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원료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3>